

찬 송 384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예물바침>
(목사)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나
이다.
(회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참조, 대상29:11)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성령강림절 성만찬>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내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
희 우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창조3 / “흠, 생명을 품는 거룩한 터전
/ 창2:7; 갈6:7-8; 막4:3-8 >

✠ 교회소식 ✠

☐ 예배 : “식지 않는 열정으로”
캠페인의 기간은 끝나도 우리의 예배와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꺼지지 않는 전도의 불꽃을 매일 새로이 가꾸어 갑시다.

창조질서회복 설교시리즈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청지기”				
날짜	제목	구약	서신서	복음서
7월 5일	나무에게 배우는 예배	렘 17:7-8	계 22:1-2	막 8:22-26
7월 12일	흘러라, 생명의 강물아	암 5:24	계 22:17	요 4:13-14
7월 19일	흠, 생명을 품는 거룩한 터전	창 2:7	갈 6:7-8	막 4:3-8
7월 26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요 4:10-11	롬 8:19-21	마 6:26
8월 2일	하늘의 바람, 성령의 숨결	겔 37:9-10	엡 2:2	요 3:8

☐ 성령강림 후 여덟 번째주일 성찬식 : 19일(주일)

- ☑ 모임
 - 구역 모임 : 구역연합예배로 대체합니다.
 - 구역장 특송 연습 : 7월 12일(오늘) 오후 1시, 기도실
 - 상반기 구역연합예배 : 7월 19일(주) 오후 1시 30분, 본당

- ☑ 중고등부 행사 : “여름수련회 후원을 위한 일일카페” 12일(오늘) 2부예배 후, B1층 로비
- ☑ 동시통역부 워크샵 : 7월 12일(오늘) 오후 1시, 회의실 (강사 : 신혜인 교수, 한동대)
- ☑ 신앙 독서 나눔 "복음을 정확하게" :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소가재
- ☑ 소허당 전시 : 김지은 꽃꽂이 전시, 10일(금)-12일(오늘)

- ☑ 식당봉사
 - 12일(주) : 박금희 이지영 / 유장선 윤병우
 - 19일(주) : 방 민 정정아 / 방승주 이강민

- ☑ 교우소식
 - 장례 : 故김창세 성도(새가족 김준 성도 부친), 6일(월) 별세
故조금선 권사(101구역), 7일(화) 별세

☑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수련회

부서	일정	장소	주제
영아유치부	7월 25~26일(토,주일)	안동어린이집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아동부	8월 1~2일(토,주일)	아동부실 & 교회마당	사랑으로 함께 세워지는 우리
중고등부	7월 31일~8월2일(금~주일)	가평 이오스펜션	지피지기: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다
청년부	8월 7~9일(금~주일)	황성 현대수리조트엔제너두	다시 새롭게!



1 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성령강림절 후 일곱째주일

제770호
2026. 7. 12.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흘러라, 생명의 강물아”

아모스 5:24

물은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자,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차별 없이
생명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물 부족과 수질 오
염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불의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생
태적 위기의 근저에는 헛된 소비와 편리함으로 내면의 갈증을 채우려는 인간
의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의 우물은 마실수록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
고 지구를 병들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고 참된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탐욕을 멈추고 주님의 공의와 맑은 생명력을 이웃과 자연으
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 [내면의 갈증]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을 찾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소비, 인정, 성취 등)으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 [청지기의 실천] 창조주께서 주신 귀한 생명수를 맑게 보존하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 양치/설거지 시 물 받아쓰기, 천연 세제 사용,
무의식적인 일회용 생수 소비 줄이기 등)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성령강림절 후 일곱째주일에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신30:14)

(목사)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눈을 여셔서 피조물의 찬란함과 인간 생명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우리 세상은 거룩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우리의 복을 형제자매들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20장 다 같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나이다.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으며, 인자를 사랑하지도 못하였으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였나이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며,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풍성한 영으로 우리를 불드소서.

(3) 용서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시고, 평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266장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아모스 5:24(1275) 전병권 집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의 말씀> 요한계시록 22:17(423) 전병권 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 씬 목 상 >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민동림 권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4:13-14(147) 유화명 권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설 교> 『출러라, 생명의 강물아』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유화명 권사